

나주시 민원 처리 전 과정 시스템 등록

‘국민신문고’ 시민 중심으로 개편 유선·방문·출장 민원 등록 의무화 접수~종결 처리현황 실시간 공개

나주시가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혁신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관리시스템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운영한다.

이번 민원시스템 개편은 유선·서신·부서방문·출장 민원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을 관리시스템에 모두 즉각 등록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 된다.

특히 민원인이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직접 접수한 민원 외에 유선·서신·출장 등을 통해 각 부

서에서 접수한 민원의 경우 시스템 등록 절차를 생략해왔다.

이 때문에 실시간 처리 상황이 민원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열람이 불가능해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이 따랐다.

시스템 등록 누락은 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빈발성 민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체계적 이력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응대·관리로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최근 운영태 나주시장 주재로 열린 현안업무회의에서 국민신문고 민원관리시스템 개편을 결정했다.

회의에서 윤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국한했던 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를 강조했다.

나주시의 국민신문고 민원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유선·서신·부서방문·출장 등을 통해 접수된 모든 민원사항이 시스템에 등록·관리되며, 민원인

은 실시간 처리 현황을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장애인, 거동불편 주민들의 민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민봉사과 안내데스크에 ‘민원 호출 도움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 부서를 찾는 어려움을 덜어줄 ‘민원부서 동행 안내서비스’도 실시한다.

나주시는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시청 누리집에 ‘365열린 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 페이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는 물론 공리를 통해 해법을 찾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무안 복지센터에 추석 위문품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김 대표 이하 경영진 일동은 지난 5일 무안 애중복지센터를 찾아 온누리상품권과 쌀, 생필품 등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위로했다. <사진>

애중복지센터는 노인재활시설인 진성원과 성산정신요양원, 선영노인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48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회공헌 활동 이외에도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나주시청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 캠페인

나주시청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영산포 풍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 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 운동’ 기간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6개 전통시장, 상점가 애용을 독려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고흥군, 미디어아트 결합 야간관광상품 개발

옛 평생교육관에 12월까지 설치

고흥군이 고흥읍 옛 평생교육관 건물 외벽에 ‘프로젝트 매핑’ 기법을 적용한 미디어아트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나로우주센터의 ‘우주 신비’, ‘고흥의 다채로운 자연과 색’, ‘고흥 출신 아동작가 목일신 선생’ 등을 모티브로 새로운 트렌드인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12월까지 완성해 계획이다.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프록션 맵핑을 군 최초로 시도해 군민들에게 디지털 예술과 기술

이 접목된 새로운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 8월 미디어아트 전문기업 (주)트래블패키지와 협업을 통해 미디어와 음향이 결합한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을 군 관계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와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건물 외벽이 캔버스가 되어 펼쳐지는 빛의 향연에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등 시연회 반응이 좋았다. 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미디어아트 콘텐츠로 해석해 야경 도시로 도약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목일신 문화예술 거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화순 백암1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정

무단 소각 금지 서약·자율 이행

화순 능주면 백암1리가 산림청 주관 ‘2022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지정됐다.

화순군은 최근 능주면 백암1리 마을회관에서 구미라 능주면장과 백암1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마을 현판 전수식을 가졌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의 서약이행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취지로, 실제 해마다 8%정도 산불발생이 감소하는 정책효

과를 거두고 있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백암1리는 공동체 전체가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또 자발적인 불법소각 단속 활동과 소각 금지 실천으로 우수마을에 선정됐다.

구미라 능주면장은 “단속과 규제보다는 서약과 자율이행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기 바란다”며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녹색마을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구미라(오른쪽 두번째) 능주면장과 백암1리 주민들이 능주면 백암1리 마을회관에서 소각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 현판 전수식을 갖고 있다.

함평군, 노후·위험시설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확보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전남지역 최초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전국 16개 지자체 중 전국 2위에 선정돼 6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교량, 급경사지,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노후 위험시설의 사고 위험 정도를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함평군은 2023년까지 이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를 포함, 총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지역 내 노후·위험시설 20여 곳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관측은 물론 계속된 데이터로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보수·보강할 수 있어 지역 안전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대형화되는 시설물 안전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